

도시 곳곳 장에 활력 몰려온다

활기를 찾고 있다. 오는 6월 지방
확실성이 커지기 전에 서둘러 '벗
서울 재건축 단지'와 수도권 주요 신
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비롯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많은
인근과 김포, 광주 등에서 아파트가
도 대규모 브랜드 단지가 들어선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 실거주 여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경우 시세
산 전문가는 "서울 및 수도권 선호
들이 눈높이를 한 단계 낮추고 있
더욱 집중될 것"이라며 "지방에서
으로 예비 청약자의 발길이 이어질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도안신도시 내 중대형 중심 설계 돋보여

도안자이 센텀리체 GS건설

용계역 예정 입지에 초·중·고 신설 계획

GS건설이 대전 도안신도시에서 '도안자이 센텀리체'를 내놓는다.

단지는 유성구 일대에 도안지구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도안지구 26블록과 30블록에서 총 229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1780가구다.

블록별로 26블록은 지하 2층~지상 42층, 총 1209가구 중 전용면적 84~99㎡ 946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30블록은 지하 2층~지상 39층, 총 1084가구 가운

데 전용 84~134㎡ 83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공급된다.

도안자이 센텀리체는 도안신도시 2단계 개발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시점에 공급되는 대규모 단지다. 단지 인근에는 초·중·고교 신설이 계획돼 있으며, 대전도시철도 2호선 용계역(예정) 역세권 입지로 향후 개통 시 도심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상업 및 유통시설 등이 조성될 계획인 도안지구 중심상업지역도 도보권에 위치했으며, 유성IC, 서대전IC를 통한 호남고속도로 지선 이용이 가능해 세종시 등 광역 이동이 수월하다. 여기에 갑천생태호수공원과 진잠천 등이 어우러진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춘 점도 장점이다.



단지는 전용 84㎡ 이상의 중대형 타입을 다수 선보이며,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해 주거 쾌적성을 높였다.

전체동 1층에는 필로티 설계를 적용해 저층세대의 사생활 보호 및 조망권을 확보했으며,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4베이 판상형 구조를 적용해(일부 제외)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더불어 알파룸, 드레스룸 등을 마련해 수납공간과 공간 활용성도 강화했다.

신풍역 더블역세권... 여의도 접근성도 기대

더샵 신길센트럴시티 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개통 시 여의도 3정거장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영등포구에 들어서는 '더샵 신길센트럴시티'를 분양한다.

단지는 신길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35층, 16개 동, 전용면적 51~84㎡ 총 2054가구 규모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477가구다. 전용면적별로는 ▲51㎡ 150가구 ▲59㎡ 202가구 ▲74㎡ 72가구 ▲84㎡ 53가구 등이다.

오는 3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1일 1순위 해당지역 청약 진행한다. 청약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세대

주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한다.

단지는 지하철 7호선과 신안산선(예정)이 지나는 신풍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로서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향후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여의도역까지 3정거장(예정) 만에 이동이 가능해진다.

교육 환경으로는 도신초를 비롯해 대영중·영남중·대영고·영신고 등이 밀집해 있다. 편의시설은 롯데백화점과 타임스퀘어, IFC몰, 더현대 서울 등 대형 쇼핑·문화시설 이용이 수월하다. 보라매공원과 영등포제1스포츠센터,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등 의료 및 여가 시설도 인접했다.

더샵 신길센트럴시티는 총 2054가구 규모에 걸맞은



더샵만의 특화 설계를 적용했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판상형 중심 설계를 통해 채광과 통풍을 고려했으며, 세대 내부에는 효율적인 공간 구성과 다양한 수납 공간을 적용해 실거주 편의성을 높였다. 단지 중앙에는 녹지와 휴식 공간이 어우러진 네이처테라스, 페르마타가든, 힐링가든 등 다양한 테마 정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경기광주역 도보권, 판교·수서 오가는 교통망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 롯데건설

경강선 이용 편리하고 수서~광주선 추진

롯데건설은 경기 광주시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를 분양한다.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 2단지는 경기도 광주시 양벌동과 쌍령동 일원, 2개 블록에 총 2326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광주시 양벌동 일원에 건립하는 1단지가 먼저 분양에 나선다. 1단지는 지하 7층~지상 최고 32층, 7개 동, 전용면적 59~260㎡, 총 1077세대 규모다. 전용면적별로는 ▲59㎡ 204세대 ▲84㎡ 752세대 ▲114㎡ 113세대 ▲162㎡~170㎡

(펜트하우스) 4세대 ▲170㎡~260㎡(복층) 4세대 등이다.

단지는 경기광주역(경강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다. 경기광주역에서 기존 경강선을 이용하면 판교역까지 4정거장(약 16분), 강남역까지 8정거장(약 30분 대)만에 이동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수서~광주선은 수서에서 모란을 거쳐 경기광주역을 연결하는 복선전철로 올해 착공을 앞두고 있다. 해당 노선이 개통하면 경기광주역에서 수서역까지 단 2정거장으로 강남역까지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

경기광주역(경강선) 인근에는 '넥서스(NEXUS)광주'로 명명된 대규모 역세권 복합개발이 추진 중이다. 연면적 약 48만㎡ 규모로 상업시설과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업무·문화·생활 기능이 집약된 복합단지로 조성



될 예정이다. 자차를 이용한 광역 이동도 수월하다. 단지 인근에 경춘대교가 갖춰져 있어 태전JC, 경기광주JC, 쌍동JC 등으로 접근이 편리하다.

생활 인프라로는 1단지 바로 앞 광주종합운동장이 이달 준공됐다. 다양한 실내 및 야외 운동공간이 있는 시민체육관과 광주시 워터파크도 1단지에서 도보권에 있다.

용인 고림에 공원형 설계로 쾌적함 높여

용인 고림 동문 디 이스트 동문건설

풍부한 녹지공간과 안전한 보행 동선 마련

동문건설은 경기 용인시 고림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용인 고림 동문 디 이스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처인구 고림동 일원에 조성되며, 지하 2층~지상 23층, 6개 동, 전용면적 59㎡, 75㎡, 84㎡ 총 350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로는 ▲59㎡ 74가구 ▲75㎡ 170가구 ▲84㎡ 106가구 등이다.

용인 고림 동문 디 이스트는 고림지구와 바로 인접해 조성되는 도시개발사업지다. 고림지구에 형성된 풍부한 생활 인프라는 물론 용인 구도심의 다양한 편

의시설까지 모두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용인시는 비규제 지역으로 청약 및 대출 규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도 특징이다.

교통여건은 예비라인 고진역을 이용해 용인 시내 이동이 편리하며, 기흥역에서 분당선 환승으로 판교 및 강남 등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할 수 있다. 오는 6월 전 구간 개통 예정인 GTX-A 구성역 이용도 가능하며, 경강선 연장(예정) 등 광역 철도망 확충 사업도 추진되고 있어 교통 여건은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차량으로는 인근 용인IC를 통해 영동고속도로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해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향후 개통 예정인 동용인IC를 이용하면 세종포천고속도로를 통한 서울 접근성도 대



폭 향상된다. 단지 반경 500m 이내에 고진초·중·고가 위치했으며, 하나로마트와 CGV, 이마트, 용인중앙시장, 처인구청 등 생활 편의시설도 인접했다. 삼성전자의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생활권에 위치해 직주근접 수요도 탄탄하다.